광양 황금일반산단 조성 사업 탄력

총 사업비 2954억원 투입
111만㎡ 규모 2020년 완공
진입도로 개설 공사 시작
8월부터 용지 일부 분양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인 광양황금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입도로 공사에 착수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산업시설용지 일부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광양 황금동 일원에 조성중인 황금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작했다.

국비 283억원이 투입되며, 북쪽으로는 지방도 865호, 동쪽으로는 광양항 서측 배후도로와 황금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공사로, 총 연장 2.81㎞, 교량 2개소 등을 설치한다.

황금산단은 총 사업비 2954억원을 투입해 111만6000㎡ 규모로 조성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12만4000㎡와 고부가가치 및 미래성장 유망업종인 전기장비 제조, 1차 금속, 금속가공, 운송장비, 기계 및 장비제조 등 신소재 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황금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지난해 8월 착공했으며, 사업구역 내 임야 3개소의 토사를 활용해 2개 단지의 매립작업과 가토제(호안)를 축조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20% 수준으로 오는 2020년 준공 예정이다. 또 오는 8월부터는 산업시설용지 일부를 분양할 예정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특히 황금산단의 본격적인 입주시기에 앞서 산단 분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를 우선 개설하기로 하고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갔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100% 국비를 지원받아 공사중인 진입도로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반시설로 산단의 교통량 증가에 사전 대비하고, 분양가도 낮출 수 있어 기업유치에도 큰 힘이 된다"면서 "진입도로를 오는 2019년까지 완공해 산단과 광양항·고속도로 등을 연결하는 교통개선으로 입주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나주 인재육성기금 100억 돌파

1993년 첫 출연후 24년만에
강인규 시장 42억 조성 기여

나주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나주교육진흥재단의 인재육성기금이 100억원을 달성했다.

나주시는 지난 17일 시청에서 나주교육진흥재단 인재육성기금 100억원 달성을 기념하는 축하기념행사를 했다.

기념식에는 정성이 가득 담긴 후원금을 기탁했던 기관과 기업체 대표, 시민, 출향인사, 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나주시립합창단 공연과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에 기여한 농협은행 나주시지부와 금성건설 오종순 회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1993년 1억4400만원으로 출발한 인재육성기금은 시민들의 꾸준한 정성과 시출연금으로 2014년까지 58억6900만원을 조성했다.

이후 민선 6기 강인규 시장이 취임하면서 기금이 크게 늘어 2년 8개월 만에 102억7200만원을 조성하는 등 100억원을 돌파했다. 지금까지 지역 출신 학생 3528명에게 모두 37억7728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진로콘서트, 진학컨설팅, 진로체험 공모사업, 대학입시 설명회 등 다양한 교육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강인규 시장은 18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주의 미래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아름다운 기부를 실천해주신 모든 기탁자께 감사를 드린다"며 "교육이 살아야 나주가 산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교육정책의 지속적 발굴과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광양제철 설비 총점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여름철 대비 설비 총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설비 총 점검 활동은 하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태풍,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한 갑작스런 고장이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요설비 작동상태 ▲냉각설비 작동상태 ▲핵심 전기설비 가동상태 ▲토건시설물 안전상태 ▲필수자재 보유 현황 등이다.

제철소 내 모든 현장 설비에 대해 운전직원과 정비직원이 취약설비와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조금의 이상 여부라도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광양제철소의 주력제품인 자동차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핵심설비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점검으로 설비 관련 돌발장애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데 노력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선행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장미의 계절' 광양의 유혹

광양시가 중동근린공원과 마동유원지 등에 대규모로 조성한 장미꽃이 만개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나주시, 내일 세계인의 날 맞아 지구촌 가족 페스티벌

나주시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금남동 야외공연장에서 '2017 지구촌 가족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나주시가 후원하고 나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하양진)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인의 날(20일)을 기념해 다문화가족, 거주 외국인,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꾸며진다.

나주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30분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모범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상을 비롯한 결혼이주여성들이 각 국의 다양한 의상과 소품 등을 활용한 세계의상 패션쇼를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후에는 중국, 베트남 등 각국의 춤 공연, 지구촌 가족 오락 한마당, 가족 장기자랑 등이 연이어 진행된다. 또 축제장 일원에서는 ▲세계 국가 문화전시 및 전통놀이 체험 ▲아시아 어울림 장터 ▲6개국 다문화음식 맛보기 ▲가족사랑 포토존 ▲네일아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광양시, ㈜메인테크와 도심 숲가꾸기 협약

광양시는 "최근 도시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원관리 지정(4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강창희 ㈜메인테크 대표, 소오섭 광양도심숲가꾸기위원회 위원장과 회사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광양시와 ㈜메인테크, (사)광양도심숲가꾸기위원회는 중마동 우림필유 옆 기업공원인 눈소공원에 대한 협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풀베기와 잡초제거, 수목관리 등 환경정화 활동과 불법쓰레기 투기 등 금지행위 계도, 공원 내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해 파손 등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현주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많은 기업·단체들이 시민들과 함께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명품도시 광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영산포청년회 명사 초청 특강 호응

영산포청년회는 "지난 15일 회원 90여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인생의 꿈을 찾고 스스로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지역 명사초청 특강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강사로 나선 영산포 출신 윤명성 광주지방경찰청 제2부장은 '꿈과 도전이 미래를 만든다'를 주제로 지역사회 미래설계를 위한 방법 등을 특강했다.

김경민 영산포청년회장은 "청년회원의 미래설계를 위한 목표 설정의 중요성과 방법을 자세하게 일깨워준 유익한 강의였다"면서 "앞으로도 훌륭한 지역의 명사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산포청년회는 지난 2016년 12월 26일 90여명의 회원을 모아 출범했으며, 영산포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궂은일에 발벗고 나서는 등 봉사단체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